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두18639 공매대금배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누37093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상 채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 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에서는,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채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과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채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

서 제1호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채납처분비'를, 제2호에서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채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채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국세징수법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채납처분 절차의 집행기관이 그 채권의 존부, 금액 및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배분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전세권, 저당권, 동산질권과 달리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은 질권설정의 합의 이외에 민법 제349조가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제3채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 민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자는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 민사집행절차에서도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의 지위에 있을 뿐인 점, 만약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자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배분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고 국세징수법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납자가 가공의 질권설정 등 탈법적 수단으로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질

권은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으로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그의 승낙이라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징수법 제81조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_____

주 심 대법관 이홍훈 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